

항만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

한 국어촌어항협회가 또다시 획기적인 업무로 한발 앞서 나가게 되었다. 지난 7월 30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협회는 이미 지난 2005년 12월 8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한 항만 및 해안분야, 해양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등록한 바 있으나 실제적인 활동은 여러 가지 여건상 어항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업무를 주로 수행해 왔다.

그 동안 정부의 위탁사업으로 105개 국가어항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어항시설의 유지, 관리, 보수와 재난예방에 적잖은 도움을 줌으로써 이미 업무수행과 기술력에 관한 능력은 자타의 공인을 받아오고 있던 터였다.

그런데 이번에 안전진단업무에 관한 연구 및 설계업무 수행능력을 제고한 데 이어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기술력을 강화하여 항만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함에 따라 명실공히 협회의 위상을 대내외에 더욱 드높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한 파급효과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작게는 어항 또는 항만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입찰 또는 법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등을 통해 수수하게 됨으로써 협회의 수익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가기간산업 시설물에 대한 내구연한 증진과 재해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어항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세계는 지금 기상이변으로 인한 대혼란을 겪고 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8월28일부터 평양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남북정상회담이 갑자기 내린 집중호우로 대동강이 범람함으로써 10월 2일로 연기되는 사태가 야기될 정도이다.

무엇보다 과거와 같이 장마기, 태풍기 등 예측이 가능했던 기후조건이 국지성 호우 등 이른바 게릴라 식 예측불허의 기습적인 기상재해로 바뀌었기 때문에 국민과 관계당국을 모두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로 인한 피해가 과거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이는 대부분 돌발적 기상이변이라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유일한 대안은 철저한 사전 정밀진단을 통한 예방뿐이다.

최근 5년간 태풍피해액이 국가어항 217억 5천만원, 지방어항 603억 1천 7백만원, 정주어항 및 소규모어항 978억 5천 2백만원이라는 사실이 웅변으로 이를 증명하고 있다.

피해액도 피해액이지만 이로 인한 어업인들이 겪을 심적, 정신적, 물질적 고통과 좌절감을 고려한다면 어찌하면 이런 외형적인 피해액은 오히려 하찮을지도 모르겠다.

바로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어항 시설물 안전진단업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적인 중차대한 업무를 우리 협회가 본격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뿌듯한 자긍심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커다란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그 동안 쌓아온 모든 연구 노력을 집대성하여 시설물 안전점검업무를 고도화 하는데 매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이 애국하는 길이고, 협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이번에 항만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것을 계기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각오와 비전을 가질 필요성이 더욱 절실했다. 그 이유는 각종 어항 항만과 관련한 기술을 다양화 하고, 전문성을 갖춰 이 분야에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협회 발전 방향이기 때문이다.

